

## DMZ보고서

2201 강주영

비무장지대를 가기 전에 나는 단지 놀러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만 가지고 갔는데 철원에 도착해서는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나를 반성할 정도로 역사적인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항상 박물관에 가서 유리 안에 있는 유물을 보기만 하고 왔었기 때문에 별다른 감흥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에 직접 와서 눈으로 보니까 느낌이 색다르고 마음에 와 닿았다. 노동당사에 갔을 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 민간인 통제 구역에서부터 국경선 평화학교가 있는 길을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버스 밖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몇 가지 있었다. 나는 그 건물들이 뭔지 너무 궁금해서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차를 타고 이동을 해서 자세히 볼 수 없었던 것이 아직도 너무 아쉽다. 그리고 실제로 군복무 중이던 군인들을 보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존경스럽다고 느껴졌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서 민간인이 갈 수 있는 북쪽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실제로 몇 km만 가면 북한 땅이라는 것을 실감했고, 신기하기도 했다. 국경선 평화학교에 들어가서 교장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나라의 분단을 평화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는 평화전망대이다. 내가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역사적인 장소들을 내 두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감동을 가지고 온 것 같다. 우리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를 보면서 나는 만약 내가 전쟁이 났던 그 시대에 살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북한 땅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나는 왜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 내 마음대로 오고갈 수 없게 되었는지 답답하고 속상했다. 평화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북한과 남한의 각 지도자들이 자유롭게 손을 잡고 각 나라의 경계선을 쉽게 넘어가는데 왜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쉽게 갈 수가 없는지 너무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다. 평화전망대에서 본 풍경은 잊을 수 없을 것 같고, 좀 더 여유롭게 둘러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 너무 아쉬웠다. 소이산에 올라갈 때는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나는 그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 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제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만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랐다. 나는 비무장 지대를 다녀와서 새로운 꿈을 한 가지 더 가지게 되었다. 나의 장래희망은 음악교사이다. 해외선교를 나갔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음악을 배울 기회가 없어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고 내가 음악을 배워 음악의 즐거움,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 꿈을 가지게 됐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보다 먼저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음악을 통해서 북한과 남한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전에 통일에 대해 생각을 크게 해 본 적이 없었다. 통일이 되면 되는데로 안 되면 안 되는데로 어차피 나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비무장지대에 다녀와서 남한과 북한의 경계와 아픔을 직접 보고, 느끼고, 듣게 되니까 통일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같은 한 민족이고, 우리가 분단이 되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력한다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역시 통일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다. 언젠가 북한과 남한이 서로 손 잡고 마주보고 웃을 일이 오지 않을까. 나는 비무장 지대에 다시 가게 될 기회가 찾아온다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될 때마다 다시 가 볼 것이다.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적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